**동아시아 지역질서 연구회 제 4회 연구진 세미나**

**<국제정치이론의 보편성과 특수성: 복잡계이론의 응용과 한계>**

**발표자 민병원**

**1. 지적 연대기(?)**

삼국지를 읽어본 적이 있는가? 이문열 것과 황석영의 것이 있다. 임꺽정은 어떤가? 홍명-이라고 납복된 두꺼운 책이 있는데, 어릴 때 당시에 인터넷이 없을 때 - 대리만족을 위해서 읽은 적이 있다.

이러한 책들을 읽으면서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등장인물들이 나오면서 서로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진행되는데, 허구이기는 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스토리로 빠져들게 하는 마력이 있는 것이다.

우리도 워크샵을 할 때 이러한 포맷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모임은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실험적으로 기획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끝없는 탐구> 라는 Karl Popper의 자서전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저자가 본인이 어떻게 하여서 학문에 관심을 가지고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다. 또 하나의 다른 책은 <어쩌다 사회학자가 되어>, Peter Burger 인데, 굉장히 저명하고 총명한 사회학자인 본인이 어떤 계기를 통하여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풀어가고 있다.

나는 이러한 책들보다는 거창한 얘기보다는, 대학원생 때부터 가지고 있던 고민들과, 본인이 계속 탐구를 가져왔던 복잡계 이론, 그리고 이러한 학문적 관심사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왔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보고자 한다.

본인이 처음에 대학원에 진학한 것은 1986년이었다. 당시의 대학원은 부끄러울 정도로 교육과정이 얕았지만, 선생님들의 문제의식만은 잘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유학을 가서 느끼게 된 것이지만 대학원에서는 역사, 철학, 법, 동아시아와 같은 것들을 공부했지만, 실제로 사회과학에 대한 공부는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당시 대학원에는 노재봉, 김용구, 하영선, 박상섭 선생님, 그리고 이 분들의 대스승이신 이용희선생님이 계셨었다. 이 분들은 유학을 위한 공부를 지양하고, 법과 사상을 중심으로 한 깊이 있는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다. 1980년대 말기 당시는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집권과 정치적인 행보로 많은 학생들이 소련을 공부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학교 안에서는 내용을 배운 것은 별로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선생님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에서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이중에 하영선 선생님께서는 논문지도교수님이셨는데, 이 분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석사논문은 루소에 관해서, 박사 논문은 핵 군축에 관해서 쓰셨는데, 굉장히 절묘하다고 느꼈던 것이 굉장히 다른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결을 하시려는 노력을 보여주셨다는 점이다.

**2. 처음으로 논문을 쓰다!**

필수수강학점을 다 채워 놓고 논문을 써야 했었는데,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문제의식이 없었기 대문에 힘들었었다. 고민과 고난 속에서 George Kennan의 봉쇄정책에 대해서 쓰기로 결정했고 연구를 위한 외교문서들이 다행히 출간되어 있었고 서울대 도서관에 인쇄되어 있었다. 당시에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지금 와서 돌이켜봐도 상당히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아직도 부끄러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지금도 내 석사논문을 읽고 논평을 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한 이후에는 가슴이 철렁하기도 한다.

**3. 연구소생활... 생활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본인은 석사 이후에 세종연구소에 오랫동안 있었다. 세종연구소는 미국의 브루킹스와 같은 선진연구소를 모델로 하여 만들었지만 지금은 본래 설립된 취지와는 달리 많이 기울게 된다. 그 곳에서 5년 반 동안 있었는데, 정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다지 배운 것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 나도 박사를 해볼만하다는 생각에서 유학을 계획하게 되었다.

동주 이용희 선생님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만드신 한국 국제정치학의 대부와도 같은 분이다. 이분의 제자들께서 세종연구소에 많이 계셨었다. 이용희 선생님은 독학을 하셨는데, 본인의 학문에 대한 깊이가 상당하셨다. 어느 정도냐 하면, 외국에서 정치학, 경제학 박사분들이 계셨는데 그 누구도 선생님의 깊이를 따라갈 수 없었다. 박사분들이 선생님께 혼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공부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느꼈다.

**4. 태평양을 건너... 유학생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이렇게나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었다. 서른이 다 되어 상당히 늦은 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쌓인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다. 좋은 것이 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라 공부에 잘 맞았으나, 정치학의 성격과 이러한 성격 때문에 박사과정을 9년 동안 하여 마쳤다.

미국의 북서부의 대학들은 상당히 계량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통계, 정량화 이론, 등이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별로 재미가 없었고 오히려 심리학이 재미있었는데 국제정치경제, 비교정치 등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가 결국에는 국제정치학(IR)을 공부하게 되었다.

**5. CAS 와의 만남**

당시에 매력을 느껴 수업을 많이 듣고 자율연구수업도 들었던 교수님 Donald Sylvan께서 잡 오퍼를 제안하셨었다. Center for Integrated Design 이라는 곳에서는 자연과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복잡계나 카오스 이론과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공부를 했었다. 카오스나 프랙탈과 같은 것들에 굉장한 매력을 느꼈고, 사회과학과는 좀 거리가 멀어진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방법론과 프로그램의 기법을 배워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 중에 Parallel-programming 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본래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사고의 선(thread)가 하나인(serial 이라고 함) 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다. 이는 사회는 실제로 parallel 하게 진행된다는 생각에 기반한 것이다.

**6. 박사학위 논문을 위한 투쟁**

논문 주제는 계량데이터와 통계분석을 이용한 경험적 연구였는데, 이는 역사적 사례는 오로지 한번밖에 일어나지 않으며, 이러한 것들을 일반화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가상의 세계정치에서 무수하게 많은 역사적 경로를 생성한다면 IR 이론의 검증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서 주요 이론을 검증하려는 작업의 계획을 세웠다.

**7. 분석도구는 어떻게?**

가상세계(Artificial World)를 만들어서 그 내에서 이론을 검증해보고자 하는 이러한 작업은 OSU 의 IR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선구자들 선생님들의 많은 도움들을 받았다. 실제로 Globus 라고 하여 굉장히 큰 범위의 경험적 데이터를 컴퓨터화 하고자 하는 작업이 있었으나 본인은 이론중심적으로 소규모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Cusack and Stoll 의 국가들 사이의 분쟁 연구와 Epstein and Axtell 의 무역관계에 관한 알고리즘을 참조하여 현실주의와 자유주의를 테스트 할 수 있는 분석틀을 만들어냈다.

**8. 귀국을 서두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귀국을 서두르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와서 본인의 작업을 논문으로 투고하고 여러 곳에서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반응은 상당히 냉담했고, 국제정치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방법론이 적절한지에 대한 코멘트를 많이 받았다. 당시에 학자로서의 정체성이 상당히 흐릿해진 상태에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에서 오퍼가 들어와서 이를 수락했고 그 곳에서 7년 동안 있었다. 이 시기에 다양한 연구를 했고 수업도 교양수업이어서 여러모로 편했지만, 사실은 대학원생들과 치열하게 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아쉬웠다.

**9. 재정비: 연구 어젠다의 재설정**

이화여자대학교에 부임한 후에 다양한 연구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이중에는 정보화세계정치연구회, 기술사회연구회, 인터넷주소정책포럼, 한국인터넷거버넌스, IT정치연구회, 수요안보모임, 정치학방법론모임, COREN(한국복잡계학회격의 모임) 등이 있고 이러한 지적인 소통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다양한 연구 아젠다를 어느정도 정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이론적, 방법론적 편향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문제의식에 기반을 하고 있다.

1) 이론과 방법론

2) 정보화정치

3) 안보

4) 문화

5) 거버넌스

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

10. 국제정치로의 회귀: 학자인가, 교육자인가?

**전재성 교수님 커멘트**

지금까지 이러한 일종의 자기고백의 자리를 가지기는 어려웠는데 새로운 기회를 가지게 되어서 굉장히 흡족스럽다.

동아시아 국제정치이론의 작업을 동아시아의 역사적인 경험은 서구의 그것과는 다르고 따라서 좀 다른 이론 틀을 필요로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다. 객관적이거나 실증주의적인 인식론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학자의 연구 아젠다라는 것을 텍스트로 삼아 살펴보면, 상당히 보편주의적인 실중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사실은 상당히 특정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실증주의적 문제의식도 역시 역사적 특정성 속에서 일어난다.) 객관성 및 보편성과 특정성 사이에 어떤 것이 우위를 점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든다. 한 학자의 작업을 평하려면, 그의 지평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실제로는 역사적인 특정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다.

**질문**

1. 동서양을 오가시면서 학풍이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입장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민선생님: 통계와 데이터를 사용하는 학풍이 상당히 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이제는 가지게 되었다. 아무리 통계를 돌리더라도 사회과학적인 개념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제의식이 없으면 적절한 사회과학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든다. 미국 학계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은 제시되고 있으며, 실증적인 모델들 앞에서 진정한 정치학은 어디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이다.

산은 산이오 물은 물이오 라는 말이 있다. 도를 닦다 보면 산이 산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도를 제대로 닦은 사람은 다시 산을 산으로 볼 수 있는 통찰을 기를 수 있게 된다.

한국적 국제정치학이 필요하다는 논의는 1950년대부터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들 소에서 알맹이는 없고 논의만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한국적 국제정치학을 해내기 위해서는 서양의 국제정치학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배적인 담론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 하는 대안의 시각들에 대한 공부가 필요할 것이다.

**도종윤 선생님 코멘트**

후학들에게 하고자 하는 코멘트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지

민병원 선생님: 유학 가서 그곳에서 요구하는 것들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매력을 못 느끼고 있고, 사실은 서양의 것을 잘 알고자 하면서도 동아시아 또는 한국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잃지 않는 하영선 선생님과 같은 분에게 큰 존경심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철저하게 직업에 대한 열정만을 가지고 학문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큰 존경심을 느끼기 어렵다.